

# “팔죽 썬먹기도 무서워”...정월대보름 식재룻값 급등

이상기후로 오곡밥·부럼 가격 인상 특수 실종에 전통시장 상인들 시름 서민들, 가격부담에 수입산 구매도 “악천후에 작황부진 이어질까 우려”

“작년 김장철에는 배춧값이, 지난 설 명절에는 차례상 음식 가격이 오르더니 이번 대보름에는 오곡밥 재료·부럼 가격이 크게 올랐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대목에도 특수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추석 등과 함께 5대 명절로 꼽히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이상기후로 인해 오곡밥·부럼 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치솟는 먹거리 물가로 인해 김장철이나 명절 같은 대목에도 전통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 제대로 된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찾은 광주 동구 대인시장. 이곳에서 쌀 상회를 운영하는 양향남(72)씨는 예년에 비해 부족 오른 오곡밥 재료 가격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대보름을 쇠는 사람들이 갈수록 사라져가는 와중에 팥·찰쌀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나마 명절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전통 음식 마련을 포기하거나 구입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을 선택하는 등의 방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예전에는 대보름이 다가오면



설·추석 등과 함께 5대 명절로 꼽히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이상기후로 인해 오곡밥·부럼 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한 지역민이 오곡밥 재료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고객들이 줄을 서서 오곡밥 재료를 사가고는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대보름을 쇠는 사람들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이상기후에 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해 그나마 재료를 사 가던 사람들의 발길도 끊기면서 장사하기가 정말 팍팍해졌다”며 “2년여 전과 비교해 2kg 기준 1만원대였던 팥 가격이 4만원까지 치솟으니, 고객들이 한 끼 먹을 정도 소량의 재료만 구매하거나 절반 가격인 수입산을 구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작황이 좋아야 하는데 여름이 길게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사정이나 아질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식당 식자재 및 업소 안주 등 각종 식품을 판매하는 정성해(68)씨의 사정도 비슷했다. 그는 대보름을 하루 앞둔 이날도 부럼 등을 사가는 손님을 10명도 보지 못했다.

정씨는 “정월대보름을 설 명절보다 크

게 설 때도 있었지만, 다 옛날얘기다. 지난 설 명절은 연중 최대 대목인 만큼 그나마 시장이 북적였지만, 고물가·경기침체 탓에 예년만큼 특수를 누리지는 못했다. 채소·과일·육류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인들에게는 특히 명절 대목이 중요한데 이대로면 다가오는 추석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올해는 또 먹거리 물가가 얼마나 날뛰기 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오곡밥·부럼 재료 등 주요 10개 품목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 13만9700원, 대형마트 18만5220원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6.2%, 대형마트는 8.0%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폭 가격이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오곡밥 재료(찰쌀·수수·차조·붉은팥·검정콩)는 올해 전통시장 4만2700원, 대형마트 6만294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7%, 16.2% 올랐고 부럼(찰·밤·호두·은행·땅콩) 가격은 전통시장 9만7000원, 대형마트 12만228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1%, 4.2% 상승했다.

특히 붉은팥(800g)은 전통시장 기준 지난해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6000원으로 45.5% 급등했고, 찹쌀은 지난해 2600원에서 올해 3200원으로 23.1% 상승했다. 부럼 재료에서는 은행(16.7%), 땅콩(11.1%)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오곡밥 재료의 가격이 비교적 크게 상

승한 것은 재배 면적 감소와 지난해 집중 호우·폭염 등 악천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붉은팥은 폭염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으로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 같은 가격 급등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이상기후 등의 원인으로 전통시장 기준 지난해(2024년 1월 19일)에는 1만3500원이었던 배3개 가격이 지난달 8일 2만7000원으로 2배 상승했고 무 1개 가격은 지난해(2024년 1월 19일) 2000원에서 지난 8일 4000원으로 두배 올랐다. 김장철을 앞둔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지역 배추 1포기 소매 가격이 9000원 후반대까지 치솟았다가 11월이 돼서야 3000원대로 하락했으나, 지난 1월에 다시 최고 53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날 팥을 소량 구매한 박모(60)씨는 “오곡밥을 해 먹으려다가 찹쌀과 팥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보고, 간단히 팥죽만 만들기로 했다. 팥도 수입산으로 최소한의 양만 구매했다”며 “요즘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식품을 찾기가 더 어렵다. 물가안정이 체감돼야 소비도 활발해질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 광주경총, 14일 김동연 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

### ‘호남 정신과 빛의 연정’ 주제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14일 오전 7시 힐리데인호텔 컨벤션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초청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듣고, 광주·전남 기업인의 경영애로를 파악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957년 충북 음성 출신으로 제26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직 생

활을 시작했으며, 제15대 아주대학교 총장과 제4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하고, 2022년 제36대(민선8기) 경기도지사로 당선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김 지사는 14일 ‘호남 정신과 빛의 연정’을 주제로 호남의 특성을 통한 경제발전 가능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 광주정보문화진흥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우수권역’ 선정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4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연차평가에서 호남권이 우수 권역으로 선정돼 국비 2억1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역 SW·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호남·동남·동북·충청 4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진흥원은 호남권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디지털 빅테크 및 지역 선도기업 연계과정 운영 △AI 특화인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ICT 콤플렉스 시설 활용 및 디지털 신기술 개발자 교류 지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성현 기자

### 광주조달청, 상반기 2조2897억원 신속집행

#### 조달사업 54% 집행

광주지방조달청은 11일 2025년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조달청의 조달사업 목표인 4조2613억 원 중 약 54% 수준인 2조2897

억 원을 상반기 내 신속집행할 예정이다. 또 광주조달청은 조달수수료를 인하(1~4월: 20% 감경, 5~6월: 10% 감경)하고, 입찰공고 기간 단축(7일→5일)과 선금 지급 한도 확대(70%→100%) 등 여러 계약특례를 적용해 수요기관의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 DH오토웨어, 스마트항만 물류시스템 고도화 ‘순항’

### 소재부품산업 혁신 국책사업 주관기관 선정...원광대와 추진

DH오토웨어는 스마트항만 물류시스템의 운송 모니터링 장비 성능평가 국책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재부품산업기술기반 혁신(양산성능평가지원) 국책과제로, 지난해 4월 DH오토웨어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원광대학교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소재부품산업기술혁신(양산성능평가)사업은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중요 소재와 부품의 국내 개발을 장려하고 양산 과

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을 지원해 상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항만 물류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항만물류 시스템 운송 모니터링 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뿐 아니라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다. 스마트 항만에 필요한 물류 운송 차량 및 크레인 등에 각종 모니터링 장비를 장착해 물류 운송 정보 및 운반설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DH오토웨어는 해당 과제를 통해 스마트 항만에서 요구되는 높은 신뢰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처의 기술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 대비 통신 범위를 크게 확장할 뿐 아니라 항만 물류시스템의 현장 설치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항만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항만 기술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이번 국책과제를 기점으로 DH오토웨어는 스마트항만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로 관련 기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DH오토웨어 관계자는 “이번 국책과제는 DH오토웨어의 제어 모니터링 기술이 차량 자율주행기술에 이어 스마트항만 분야에까지 확대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고도화로 자율주행, 스마트항만 등 미래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 부품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 광주은행, 일임형 ISA 누적 평균 수익률 은행권 1위

### 성장산업 자산 조기 편입 전략 성과

광주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모델포트폴리오(이하 MP) 출시(2016년 5월23일) 이후 누적 평균 수익률이 전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일임형 ISA 수익률에서 고위험 MP는 62.62%, 중위험 MP는 41.02%, 저위험 MP는 21.75%를 기

록하며,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누적 평균 수익률을 달성했다.

광주은행 일임형 ISA 운용팀은 선진국 위주의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성장산업 관련 자산을 조기에 편입하는 투자 전략과 강화된 리스크관리 전략이 더해져 성과 개선에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임형 ISA는 여러 종류의 자산을 한 계좌에 통합해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상품으로, 전문가의 상품 운용과 분산투자

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세계 혜택과 금융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광주은행 김홍화 WM고객부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당행의 선진국 투자 전략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익률 관리를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